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야	11월 17일(일) 11:40	강 당
임원모임	11월 20일(수) 20:00	식 당
성체분배자회	11월 24일(일) 11:40	성체 조배실

● 2025학년도 요셉어린이집 원아모집

- 대상: [0세] 2024년1월1일~12월31일생
[1세] 2023년1월1일~12월31일생
[2세] 2022년1월1일~12월31일생
[3-4세] 2020년·2021년생
- 문의전화: 02-857-8546

●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대상 : 레지오 단원
- 일시 : 11월 24일(일) 12:30
- 장소 : 식 당.

● 다음 주일(11/24) 청소 담당 : 9구역

● 알 림

- 11월 20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11월 24일(일) 16지구 연합 2학기 청소년 축제 참가로 중고등부 미사 없습니다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구 역/ 반	성 명	세례명	이전 본당
5구역2반	이승봉	아오스딩	인천교구/일신동
10구역4반	김영랑	수산나	서울대교구/행운동
13구역3반	황동원	파트리치오	군중교구/연무대
16구역2반	신순애	안나	서울대교구/공항동
19구역2반	장진수	하상바오로	수원교구/신남
20구역1반	김윤재	안젤로	인천교구/검단동

● 아카데미아(성탄제)참여안내

- 성탄의 기쁨을 뽐내고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각 단체나 구역별 또는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사무실통해 접수해 주세요.
- 성탄성야 미사전 7시30분~9시까지 진행예정이며,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성탄 전시회 참여안내

- 자랑하고 싶은 개인적인 작품이나 성탄에 맞게 작업한 작품을 강당과 복도에 작은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전시예정기간: 12월22일~12월29일)
- 접수 : 사무실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주일반(일,오전 9시), 접수 : 사무실

● 구로3동 합창단(가칭) 단원 모집

- 새로운 도전! 아름다운 하모니!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이상의 합창에 관심있는 분 (합창경험이 없어도 환영합니다.)
- 접수:사무실 • 문의:010-4216-9841(노인분과장)

● 우리들의 정성(11월 06일 ~ 11월 12일)

• 교 무 금		6,716,000원
• 주일헌금		4,806,000원
• 평신도주일 2차헌금		1,670,000원
• 감사헌금	김민석20만원 김창현10만원 이복자10만원 이경미 5만원 나경민20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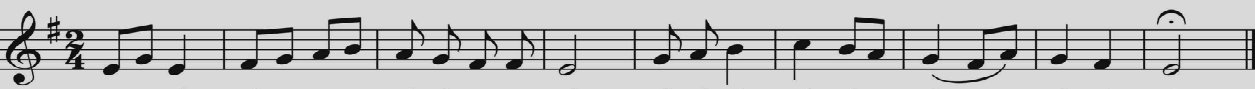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17	임종남	심재순 신종구	이치현 정재경
11/24	이영민	조홍환 장희석	김덕영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17	박형순	하재민	황태영 박승환	박용환
11/24	옥윤필	박형순	이운영 이화봉	장인홍

성가번호 ♪ 입당 : 48 ♪ 예물준비 : 446, 41 ♪ 영성체 : 46, 31 ♪ 파견 : 403

화답송



주-님 저-를-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식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간주된 미사 전례 지침

감사기도의 마침 영광송

마침 영광송은 사제가 감사기도를 마감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이다. 사제는 감사기도 끝에 성체가 담긴 성반과 성혈이 담긴 성작을 들어 올리고 혼자서 마침 영광송을 바친다. 회중은 사제의 영광송 끝에 “아멘.” 으로 환호한다. 이 환호가 끝날 때까지 사제는 성작과 성반을 높이 받들고 있어야 한다. 부제가 있으면 사제가 성체가 담긴 성반을 들고, 부제가 성혈이 담긴 성작을 든다(총지침, 180항 참조).

회중은 가능한 한 큰 환호가 되도록 ‘아멘’ 을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

감사기도 동안에 부제는 사제 곁에, 그러나 사제 조금 뒤쪽에 서서 필요할 때 성작과 미사 전례서 시중을 든다(총지침, 215항 참조).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

사제가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하면 회중은 곧바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한다. 사제는 팔을 펴들고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

평화의 인사

사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 기도를 바치고 나서 두 손을 벌렸다가 모으면서 회중을 향하여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말하면 회중은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응답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고 말하면 회중은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며 서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눈다. 이때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를 바라는 몇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거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제단에 머물면서 평화의 인사를 한다(총지침, 154항 참조).

빵 쪼개기와 하느님의 어린양

사제는 축성한 빵을 쪼갤 때 사정에 따라 부제나 공동집전자의 도움을 받는다. 빵을 쪼개는 동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동작으로서,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1고린 10,17 참조)는 사실을 드러낸다.

빵을 쪼개는 예식은 불필요하게 길게 끌어서는 안 되며 절도 없이 과장해서도 안 된다. 회중은 사제가 빵을 쪼개는 동안 “하느님의 어린양” 을 노래한다. 빵을 쪼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느님의 어린양” 을 반복하여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나 “평화를 주소서.” 라는 말로 끝맺는다.

사제는 축성한 빵을 쪼개어 조그만 조각을 성혈이 담겨 있는 성작에 넣는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 됨을 뜻한다” (총지침, 83항).